

스페인·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문학과 정치계를 뒤흔든 어느 게릴라의 작품집

송병선_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스페인어에서 파생된 ‘게릴라’는 소규모의 전투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런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게릴라’라고 부른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게릴라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최근에 우리 출판계에는 멕시코의 게릴라 단체인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의 부사령관인 마르코스가 종종 오르내리지만, 아마도 게릴라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콜롬비아일 것이다. 그곳의 대표적 게릴라 단체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이다. 그런데 그 게릴라의 부대장인 가브리엘 앙헬의 단편집 《법의학도의 달 La luna del forense》이 출간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멕시코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세인들의 관심에서 잊혀진 작품을 다시 부활시킨 이 논쟁의 장본인은 멕시코 주재 콜롬비아 대사였다. 그는 7월 중순에 기자회견을 갖고, FARC이 2002년 4월 멕시코국립대학에서 2002년 축출되었지만, 아직도 그 잔당들이 남아서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다. 또한 금년 5월의 독서회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된 《법의학도의 달》은 테러리즘을 찬양하는 선전책자라고 평가한다. 그러자 멕시코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은 상이한 여러 이데올로기를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며, 본 연구기관은 개교 이후부터 다원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콜롬비아 대사의 지적은 대학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한다.

또한 현역 게릴라 부대장의 작품집이 FARC의 테러리즘을 찬양하는 책이라는 콜롬비아 대사의 발언도 많은 학자와 문학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럼 도대체 앙헬의 《법의학도의 달》은 어떤 책일까? 12편의 단편과 1편의 중편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집은 작가 자신과 동료들의 삶을 현대 콜롬비아의 사회적 동인의 일부로써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게릴라들이 숨어 활동하는 정글의 잔인함과 화려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반란군들의 삶과 전

투를 비롯하여 정글의 향내와 죽은 영혼들이 뒤섞여 산의 정령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특히 죽은 전사들은 살아 있는 전사들과 만나면서, 부활의 신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가령 네그로(검둥이)는 저 세상에서 죽은 게릴라들을 위해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각자가 죽은 지역의 수호정령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전사들을 도와야 사랑하는 연인을 옆에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주요 임무는 전사들의 의식 속에 희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존재를 느낄 것이다. 나는 살아 있는 전사들을 도와주어 그들에게 담배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 작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비평가들은 이 책이 상당한 미학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즉, 현재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대표적인 글쓰기 형식인 ‘마술적 사실주의’를 이어받고 있으며, 주인공인 게릴라 전사들도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 작품집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미학 작품이며, 콜롬비아 혁명에 헌신한 사람들을 서정적으로 그리는 뛰어난 책이라고 확신한다.

이 논란은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외교관계로 비화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문학적 차원에서 콜롬비아 대사는 완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것일까? 혹자는 콜롬비아의 내전 문제를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워싱턴의 반테러리즘 추진전략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논란은 많은 라틴아메리카 문학인들이 현재의 콜롬비아 문학에 관심을 갖게 만든 동기가 되었으며, 정치적·경제적 위기는 문학의 비옥한 토양이라는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이기도 했다. ■